

광주시, 맥쿼리 처분만 기다렸다

〈민자사업자〉

■ 감사원 '돈먹는 하마' 제2순환도로 감사 살펴보니 예산낭비 잇단 지적에도 말뿐인 협상만 반복 사업권 강제 회수·강력한 법적 대응 나서야

15일 감사원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 감사결과에 광주시가 민자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맥쿼리)의 협상 거부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협약 변경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상사중재, 민사재판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맥쿼리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적절한 조치 없이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광주시가 막대한 재정부담과 시민단체·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수입보장을 인하여 협약 변경 협상에 들어갔으나 5년이 지나도록 별 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것도 이 같은 '미지근한 대응' 탓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시 말뿐인 협상만 반복=광주시가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제2순환도로 민자 구간 재협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06년 하반기로, 당시 광주시는

교통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6명으로 협상팀을 구성하고 법률과 회계관련 자문을 거쳐 사업자에게 협약 재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대출이자 인하 등 금융여건을 고려해 수익률과 차입이자율을 조정해 수입보장을 인하여, 수입보장기간 단축 등 투자조건을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광주시는 통행량 예측 잘못으로 해마다 2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돼 재정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다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됐고, 2012년에는 20%로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소수익보장을 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자사업자인 맥쿼리는 목표부담금으로 일관했다.

최근에는 맥쿼리 측이 법인세율 인하분을 반영해 수익률 인하와 통행료 인하, 위탁운영 기간 단축 등의 3가지 방안을 놓고 광주시와 협의를 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감사원은 이 같은 협상 과정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협상에 불응할 경우 1998년 맥쿼리와 맺은 최초 협약과 2004년 6월 개정

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상사중재나 민사재판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침 개정 이전에 자본구조를 변경한 경우 지난 1997년 광주시와 맥쿼리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51조 제1항의 약정에 따라 이익공유를 위한 협약 변경을, 개정 이후에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7조·제30조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협약 변경에 나서야 했다고 강조했다. 맥쿼리 측이 지난 2003년 3월과 2004년 10월 각각 이자율이 비싼 주주 차입금으로 조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근거도 있었다는 것이다.

◇법적 대응, 사업권 강제회수 등 시급=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인 제1구간(보장기간 2001년~2028년)과 제3-1구간(보장기간 2004년~2034년) 등에 매년 200억원 이상을 보전해주고 있다. 보장기간을 감안하면 수 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시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의 전체 예산규모가 3조

원을 넘었지만 가용예산은 그 10%인 3000억원 정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용예산의 7~8%가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의 수익보전에 쓰이게 돼 그만큼 시민들이 시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제2순환도로 주변 소음 문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광주시가 54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음방지시설까지 설치하는 등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협상보다는 감사원의 지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 및 사업권 강제회수 등의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시가 맥쿼리라는 국내 최대 민자사업자와의 법정 다툼을 일부러 피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 근거가 명백해진 만큼 광주시가 상사중재나 민사재판을 서둘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6·15 공동선언 완전이행 하라 15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15 공동선언' 11월 기념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6·15 공동선언의 완전이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KTX-고속·시외버스 2분내 환승 숙박·업무·컨벤션 등 복합 센터로

광주 송정역 개발계획 착수 보고회

광주송정역에 들어설 복합환승센터는 숙박·업무·컨벤션시설, 복합상업시설, 역무 및 환승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센터가 설립되면 고속철도(KTX)·고속 및 시외버스·지하철·시내버스 등의 교통수단과 2분 내 환승이 가능하게 된다.

또 복합환승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광주 송정역~나주 시간 대로 1-10호선 등 도로망 구축, 광주역 이용인들의 흡수, 인구 유입을 위한 특화시설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착수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도화엔지니어링 등은 전체 부지 약 11만㎡에 건축면적 건축면적 약 5만7242㎡에 연면적 20만1274㎡의 환승복합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3층 규모의 센터에는 숙박·업무·컨벤션(10만2604㎡), 복합상업시설(3만3000㎡), 역무시설(2

만5000㎡), 환승시설(1만㎡) 등이 들어설게 되며 1층에 빙고광장·환승터미널·상업시설, 2층 철도역사·환승터미널·상업시설, 3층에는 호텔 컨벤션·철도역사·상업시설 등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업체는 인구유입 방안으로 웨딩홀, 남도 향토 음식전문점, 전자 아이리움, 머슬파크, IT 미니 어처랜드, 종합격투 시설, CT R & D센터, 면세점, 공학터미널 등의 특화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센터 전체의 이미지를 문화와 예술의 고장인 광주시의 특징과 LED 및 3D 등 첨단 방식, 유비쿼터스 기술 등을 가미해 디자인할 예정이다.

또 1단계 복합환승센터의 핵심 기능과 도시발전은 위한 특화시설 및 필수 시설, 2단계 복합환승센터 이용의 확산에 따라 주변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등 단계별 개발을 위해 특별개발구역 지정으로 자가 상상을 막고 이용객 확대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매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 철도공사 등 공공소유의 부지를 최대한 이용하고 민간투자자의 의견 반영을 반영해 개발 컨셉과 유치업종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용역업체는 광주시에 ▲민자사업자와 광주시 참여 형태와 범위(광주도시공사 등 참여) ▲사업자 포함 범위 ▲민자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개발권 부여나 임대기간 등)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의 입주를 통한 활성화 방안 ▲신규 버스터미널의 운영자 선정 방식 또는 운영 방법 등을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안은 초안에 불과하며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을 다듬어갈 것"이라며 "광주역의 KTX 진입 여부도 올해 내 결정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기간은 오는 2012년 6월까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6385억 빛더미

F1에만 995억 지방채 작년보다 1220억 늘어

전남도 채무가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 내놓은 '2011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전남도의 지방채 채무잔액은 6385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지방채 채무잔액 5164억4400만원에 비해 무려 122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채 발행 사업도 21개에 달해 지난해 같은 시기(13개)보다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1.03%로 지난해(8.18%)보다 늘어났다.

신규 사업은 ▲환경산업융합기술센터 건립(44억) ▲도립 도서관 건립(35억2800만원) ▲도 종합스포츠타센터 건립(38억) ▲국가지원지방도 토지보상(160억)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50억) ▲취득세 감액보전분(242억) ▲지방도 정비(100억) ▲재해위험지

구 정비사업(18억) 등이다.

기존 사업은 ▲여성플라자 건립(135억2200만원) ▲서남해안관광개발지구 도시출자(448억) ▲지방도 정비(800억) ▲순천·나주·영광소방서 신축(12억4000만원) ▲재해 복구사업(331억5700만원) ▲축산기술연구소 청사 신축(250억)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청사 신축(55억)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167억9600만원) 등이다.

또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분(1801억) ▲F1경주장 건설(868억300만원)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126억92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601억) 등이다. F1 사업에만 총 994억9500만원의 지방채가 발행된 셈이다.

이 가운데 지방도 정비(100억원)와 재해복구(18억4400만원), 위험지구정비사업(18억원) 등은 올해 상환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줄어든 교부세 감액을 보전하고 F1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 규모가 늘어났지만 전체 지방채 규모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빛더미만평

- 김중두



사교육만 늘어날거 뻔히 알면서~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성점(법률공관) 삼성로 일가: 022276-057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일가: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철) 일가: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인천점(구 시민회관) 일가: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일가: 032617-5110 수원점(남문) 일가: 0318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일가: 0318246-5110 용인점(백산로2001) 일가: 0314699-0110-1 평택점(평택역) 일가: 0316598-5110 용인점(용인내거리) 일가: 031336-1090 오산점(오산역) 일가: 031378-4183 부천점(65빌딩) 일가: 032039-4400 부산 시면점(시면로터리) 일가: 051818-8800 서면점(서면역) 일가: 051256-7200 울산 울산점(울산로터리) 일가: 052089-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일가: 055297-6060 대구 동구점(구 동문) 일가: 055284-5055 대구 동점(동문네거리) 일가: 053425-4440 삼척점(삼척네거리) 일가: 053426-1511 남양주점(아라리오) 일가: 053425-7575 경북 포항점(포항역) 일가: 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 일가: 054659-2248 광주 광주점(구도동) 일가: 062225-5110 광주점(백동광) 일가: 06285-4477 전남 순천점(순천시) 일가: 061752-8845 전북 전주점(안방로터리) 일가: 063822-5728 군산점(구 시청) 일가: 063446-0198 익산점(익산시청) 일가: 063838-5900 남원점(남원시청) 일가: 063632-2826 대전 대전점(도청) 일가: 042254-5110 대전점(충혼로터리) 일가: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일가: 04262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일가: 041653-2868 광주점(광주문화사거리) 일가: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천안로터리) 일가: 043222-1177-8 충북점(삼천로터리) 일가: 043852-1414 강원 강릉점(강릉역) 일가: 033647-0588 춘천점(춘천역) 일가: 033825-5110 제주 제주점(광복로) 일가: 064753-4356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심점 세기보청기	■ 광주 백운광점 세기보청기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문의전화 (062)651-4477	문의전화 (061)752-8845